

11/5/99 (목)
정영일

A-2 1999년11월5일(금요일)

종합 II Local News

중앙일

노인상조회도 집단소송 추진

일제징용 피해보상 고령자중 피해자파악...변호인측과 절차협의

일제치하에서 징용에 끌려갔던 피해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LA지역 한인 노인들이 대거 이 소송에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징용소송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LA한국노인상조회(회장 노천

환)는 4일 “현재 상조회 회원들 가운데 일제치하 당시 징용 해당자가 상당수 있는 것이 확인돼 회원들과 함께 집단소송 가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천환 회장은 “현재 담당 변호인측과 절차 및 방법 등을 협의, 곧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며 “상조회

본연의 목적이 회원들의 복리 증진에 있는 만큼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길이 있다면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이라고 여겨게 됐다”고 소송가담 여부의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상조회에는 일반 및 특별 상조회를 포괄, 모두 1,80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데 71세이

상 노년층은 53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명의 회원이 이미 소송 가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조회는 이달 20일 내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징용 피해보상 소송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해당자들을 더 모집한다는 방침이

다.
상조회측은 그러나 사안이 민감한 것인 데다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로서는 동참할 의사를 밝힌 개인 신상이나 그외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LA에서는 지난달 신혜원(37) 변호사 등을 통해 정재원(77)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래 미 전역 각지서 이에 대한 문의나 동참할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본국서도 지난달말 200여명의 유가족들이 별도의 소송의사를 밝혀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최경호 기자
<ckho@joongangusa.com>